

‘영원한 MC’ 송해… ‘송해공원’에 잠든다

‘작은 거인’ 송해, 유족·후배들 배웅 속에 ‘영면’
송해길·KBS서 ‘노제’… 아내 잠든 ‘송해공원’에 묻혀
후배들, “별들 앞에서 ‘천국노래자랑’ 외쳐달라”

딩동댕! “전국~” “노래자랑~~~.” ‘가수’이자 ‘코미디언’,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67년째 현역 생활을 하다 타계한 고(故) 송해의 영결식장에 고인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다. 10일 오전 5시를 바라보는 시각, 서울 종로구 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영결식장에 모인 80여명의 조문객들은 다류 ‘송해 1927’에서 발췌한 고인의 육성과 함께 “전국”이라는 선구호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노래자랑”을 외쳤다. 고인의 생전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장례를 가득 메운 후배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이날 영결식은 오전 4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코미디언 김학래가 “오늘만큼은 마음이 슬프더라도 즐겁게 보내드리자”고 말문을 열자, 조사(弔辭)를 맡은 엄영수(개명 전 ‘엄용수’) 방송 코미디언협회장이 단상에 올라와 미리 준비한 추모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엄영수는 “선생님께서 남들은 은퇴할 나이인 61세에 ‘전국노래자랑’ MC를 맡으셔서 방송계 최고의 기록을 남기셨다”며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나시면서 최고령 MC에 등극하셨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이어 “‘뽀빠리’를 차창하신 선생님께서는 출연자와 그냥 대화한 하신 게 아니었다”고 짚은 엄영수는 “선생님이 계신 곳은 재래시장이 되고, 화개장터가 됐다”며 “선생님은 할아버지와 할머

니를 청춘으로, 출연자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신 마술사였다”고 추어올렸다. 엄영수는 “선생님은 무작정 가출하셔서 무작정 월남하셨고, 부산에서 무작정 상경하셨고, 악극 배우로 무작정 데뷔하셨다”며 “무작정 인생을 사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선생님이 무작정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영수는 생전 ‘하차’ 논란이 일었던 것을 염두에 둔 듯 “선생님은 ‘힘이 부쳐 못하겠다’ ‘하차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며 “아플 때도 겨우 2~3일만 입원하셨다. 원래 포기한다거나 그만둔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회상했다. 엄영수는 “또한 선생님은 ‘송해길’을 조성하셔서 전국민을 위한 휴게소를 만드셨고, 2000원짜리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으셨고, 2000원짜리 국밥을 드시며 시민들과 동고동락하셨다”며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믿기지 않는다. 하늘나라 그곳에서 편안히 자유롭게 잠드시시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코미디언 이용식은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며 “선생님, 저 용식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넨 뒤 추도사를 이어갔다. 이용식은 “이곳에서 ‘전국노래자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외쳤지만, 이제는 수많은 별들 앞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외쳐달라”며 “선생님이 다니시던 국밥집과 앉으시던 의자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의자가 됐다. 사모님, 아드님과 반갑게 만나서 이젠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셔라”고 작별을 고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이 추도사를 남겼다. 이자연은 “선생님은 지난 7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었고, 아버지였고, 형·오빠였다”며 “한결같이 우리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신 만인의 선생님. 수많은 가수가 스타로 탄생하도록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대한가수협회를 대표해 현숙·설운도·문희옥·이자연·김혜연·배일호·신유 등 7명의 톱가수들이 고인의 애창곡이었던 ‘나팔꽃 인생’을 조가(弔歌)로 불렀다. 임하룡·유재석·이수근·조세호 등 후배 코미디언들의 헌화와 묵례를 끝으로 영결식이 끝나자 곧바로 밤이이 진행됐다. 전유성·최양락·임하룡·강호동·유재석·양상국 등 6명의 후배 코미디언들이 고인을 운구해 고인이 생전 자주 찾던 ‘송해길’로 이동했다.

오전 5시 30분경 종로3가역 5호선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고인의 동상 앞에 도착한 운구 행렬은 이곳에서 짧은 노제(路祭)를 지냈다. 다음 행선지는 고인이 34년간 마이크를 잡았던 ‘전국노래자랑’의 방송사, KBS였다. 여의도 KBS 본관에 운구차가 도착하자, 전국노래자랑 악단이 신재동 악단장의 지휘로 전국노래자랑 오프닝 곡을 연주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의철 KBS 사장은 “전국의 공민, 널따란 운동장,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국노래자랑의 ‘딩동댕’ 소리가 퍼졌다”며 “이제는 꿈이라도 어머니가 기다리는 고향 땅에 가시길 빌겠다. 선생님의 작은 거인 같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세상의 모든 걱정 내려놓고 편히 영면하소서”라고 추도사를 남겼다. 이후 경복 김천에 위치한 화장장으로 이동한 고인은 아내 석옥이 여사가 잠든 ‘송해공원(대구시 달성군 옥포리 소재)’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1927년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9년 황해도



사진=공동취재단

해주예술전문학교에 입학해 성악을 공부했으나 6·25 전쟁이 터지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통신병으로 복무했다. 제대 후 1955년부터 ‘창공악극단’에서 가수 겸 MC로 연예 활동을 시작한 고인은 1960년대부터 TV와 라디오에서 가수·배우·코미디언·MC·DJ 등 다방면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988년부터 KBS 전국노래자랑의 MC를 맡아 무려 34년간 변함없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Oldest TV music talent show host)’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바 있다. 금관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 보관문화훈장, 화관문화훈장, 한국방송대상 공로상, 대한민국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KBS 연예대상 공로상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두 딸과 사위, 외손주가 있다. 아들은 1986년, 아내는 2018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 조광형 기자 theseman@naver.com

‘엘리자벳’ 제작사 EMK “옥주현 캐스팅 관여無… 유감”

“라이선스 뮤지컬은 원작자 승인 없는 출연진 캐스팅 불가”
옥주현 “소송 소란들은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다”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이하 EMK)가 옥주현을 둘러싼 ‘인맥 캐스팅’ 논란에 대해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MK는 24일 오후 “지난 6월 15일 캐스팅 관련 의혹에 대해 옥주현 배우의 어떠한 관여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에 깊은 유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 뮤지컬의 특성상 원작자의 승인 없는 출연진 캐스팅이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뮤지컬 ‘엘리자벳’의 배우 캐스팅 과정 역시 원작자의 계약 내용을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EMK는 “원작사 또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바 ‘엘리자벳’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EMK는 훌륭한 배우들을 발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뮤지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옥주현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호영을 향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악플러 2명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이어간다. 옥주현은 “최근 작품 캐스팅 문제에 관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가 뮤지컬 업계 동료 배우를 고소하는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뮤지컬 업계의 종사자분들과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관객분들을 비롯해 이 일로 불쾌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소송과 관련해 발생한 소란들은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 캐스팅이 공개되자 옥주현의 친분으로 라인업을 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호영이 SNS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옥주현은 지난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를 통해 김호영과 악플러 2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호영도 법적 대응 의사를 시사했다. 여기에 남경주, 최정원, 박칼린 감독 등 뮤



지컬 1세대 선배들이 호소문을 발표하며 논란의 판은 더욱 커졌다. 한편,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황후 ‘엘리자벳’의 드라마틱한 삶을 그린 다. 옥주현·이지혜·신성록·김준수·노민우·이해준·이지훈·강태을·박은태·민영기·김병민 등이 출연한다. 신성아 기자

“천상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임재범, 정규 7집 공개

‘가요계의 야생마’, 임재범이 7년 만에 신곡을 내고 돌아왔다. 임재범이 지난 16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위로’는 정규 7집 ‘SEVEN, (세븐 콤파)’의 프롤로그곡이다. 소울과 록을 결합한 발라드 장르로, 수많은 이유로 볼 깨진 방에서 혼자 힘들을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시간만이라도 가만히 곁에 서 있어 주고 싶다는 소박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 임재범 특유의 파워풀하고도 거친 야성미 넘치는 목소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는 듯하다는 평가. 정규 7집 ‘SEVEN, (세븐 콤파)’는 세월만큼 깊어진 임재범의 감성을 여러 각도의 이야기



로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임재범은 작곡가 김현철, 윤상, 최준영, 신재홍, 이상열 등과 협업한 노래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클래식에 기반을 둔 작곡가들과의 작업을 통해 임재범만의 특별한 감성에 무게와 풍성함을 더했다고 소속사 측은 전했다. 신성아 기자

신간 서적

리치 우먼:
현명한 여자들을 위한
재테크 지침서

김기요사치 지음
박슬라 옮김
민음인, 388쪽, 15,120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리치판다 지음
빌리버튼
404쪽, 18,000원



윌리엄 오닐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성공투자 스토리

황성배·전래훈 지음
페이지2북스
256쪽 15,300원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

엘빈 토플러·하디 토플러
지음, 김중용 옮김
청림출판
688쪽, 29,700원



메타버스 비즈니스
승자의 법칙

이상협·박상욱·
김범주 지음
테레스트
300쪽, 16,920원



자본의 미스터리: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하는가

에르난도 데소토 지음
윤영호 옮김
세종서적, 288쪽, 16,200원



1997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래, 전 세계 51가지 언어로 109개국에서 출판돼 4,000만 부(국내 400만 부)가 판매된 재테크 분야 최고의 밀리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 여성 특별판(리치 우먼)이 출간됐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인 킴 기요사키가 쓴 여성 맞춤형 재테크 지침서로 ‘부자 아빠’의 투자와 재테크 원칙들을 여성의 눈높이에서 친구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돈’과 ‘자유’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이 책은 여성 재테크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저자 ‘리치판다’는 큰 용기 내어 신성한 청약에 당첨돼 내집 마련의 꿈은 꿈은 꾸다 ‘공사 중단’이라는 날벼락 앞에 충격을 받고 조금만 마음에 분 양권을 전매해버렸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아파트값은 수직 상승했고, 이미 팔아버린 집을 보며 허탈감을 느끼어판 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로 1년치 연봉 이상의 수익을 내자 부동산 투자에 매력을 느끼고 전문 투자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책에서는 부린에서 전문가로 거듭나는 저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저자는 상승장인데 하락장이든 시장은 늘 출렁이지만, 준비된 투자자는 그 속에서 늘 기회를 찾아낸다고 강조한다.

윌리엄 오닐은 30세에 뉴욕 증권거래소 최연소 회원이 된 전설적인 투자자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혼합해 캔 슬림(CAN SLIM) 투자법을 고안했고, 그 기법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식 부자를 만드는 절대 법칙으로 통한다. 저자 에이미 스미스는 직업, 학벌, 나이,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윌리엄 오닐의 매매 원칙으로 주식 부자가 된 50여 명을 인터뷰해 그들만의 실전 투자 전략을 이 책에 모두 담았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위기를 피하고 큰돈을 버는 뛰어난 투자자들의 성공 비결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미래쇼크》, 《제3물결》에서 일찍이 지식기반 사회를 예견했던 세계적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 책을 통해 제4물결의 도래를 분석하며 우리의 경제, 사회 제도, 비즈니스에서 개인의 삶까지 사회 곳곳의 변화를 조명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부’는 단순히 화폐, 즉 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인간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을 모두 부라고 여기며, 부는 그 형태가 공유든 아니든 일종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고 정리한다. 또한 엘빈 토플러는 화폐 경제와 비화폐 경제에서 혁명적 변화가 발생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부 창출 시스템이 창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단연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이제 순간의 유행을 지나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올라타야 하는 현실 과제이자 디지털 전환의 상징이 됐다. 어떻게 해야 새롭게 부상하는 메타버스 비즈니스 세계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전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메타버스 현업 전문가 3인이 모였다. 유니티코리아 본부장 김범주, 제페토 기획자 박상욱, LG 고객 경험 전문가 이상협까지 이들이 시장 혼돈기에 맹목한 한우투(How to)를 제시한다.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하는가? 이와 관련한 대다수 연구들이 선진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에르난도 데소토는 제3세계의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소유권과 재산권을 비롯한 재산 제도가 낙후되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처럼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과거 문서 없는 땅과 주택을 몰수 당했던 서러움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저자는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재산으로 고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법 주택을 지닌 빈곤국가 시민과 같은 처지라고 역설했다. 2000년에 출간돼 다시 주목받는 이 책은 블록체인을 예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